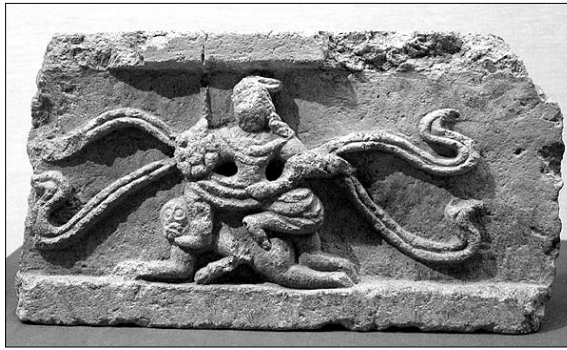


# “발굴성보 사찰이 소유해야”

“불교 성보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서 나온 유물의 소유는 사찰에 있으며, 행정적으로 국가 귀속되었다면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성보문화재 소유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온 팔부신장상.

남원 백장암 주지 영관 스님은 7월 28일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에서 나온 유물이 사찰측에 통보되지 않은 채 국가에 귀속되어 원광대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며 “소유자를 사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관 스님에 따르면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2000년, 2001년 2차에 걸쳐 석탑주변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석탑 기단석으로 보이는 팔부신장상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백장암 석탑지 발굴유물 소유권에 대한 문화재청의 판단은 국가 귀속된 성보문화재 가운데 소유가 확실한 유물을 불교계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성보문화재 소유권은 불교계가 오래전부터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다. 신앙의 대상인 성보문화재가 국가로 귀속될 경우 불교계 의지와 관계없이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성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보문화재 가운데 시각적으로 화려하지 않

## 팔부신장상 대어 관련 백장암 영관스님 문제 제기

등 석탑 복원에 중요한 유물 6점이 나왔으나 사찰에 알리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켜 아직까지 원광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

스님은 또한 “소유주가 엄연히 백장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실물로 처리해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으로 관계당국에 이의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발굴조사단 상임연구위원으로 조사단을 이끌었던 최완규 원광대 교수(고고학)는 “발굴 유물은 정식절차에 따라 국가귀속 되었으며, 이 유물은 원광대 자산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로 단지 위탁보관 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유물은 백장암 석탑 주변에 있던 것으로, 누가보아도 백장암 소유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측과 상의 없이 분실물 관리법에 따라 분실물로 간주해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고 국가에 귀속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발굴지가 사찰인 경우 소유주가 명백해 발굴과정에서 나온 유물은 당해사찰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백장암에서 나온 유물 소유권문제는 행정기관인 문화재청에서 하루속히 결론내려야

## 조사단 “절차따라...위탁 보관” 전문가 “행정 착오...시정해야”

은 도서류나 석조물 부재 등의 유물은 박물관에서도 전시되지 못하고 대부분 수장고에 쌓여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백장암을 관장하는 김재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은 “성보문화재가 불교계와 관계없이 박물관 수장고에 갇혀 있는 것은 불자면 도리로 불행한 일이다”며 “소유가 분명한 성보문화재는 돌려받아야 하며, 보관에 문제가 있다면 사찰 성보박물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백장암 삼층석탑은 1997년 도굴된 후 복원과정에 석재를 화확물로 불어 탑재의 부식이 심하고, 하중을 한쪽으로 받는 등 보존상태가 심각해 해체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장암측은 석탑의 붕괴위험을 막기 위해 해체복원을 위한 3차 조사를 중앙승가대에 의뢰해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최완규 교수도 “탑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원형을 복원해야 하며 원광대에 보관돼 있는 유물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탑재로 판정되면 언제든 원위치로 돌아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 “생활예절 절에서 배워요”

## 마라난타사 초등생 대상 첫 운영

백제 최초도래지 법성포 마라난타사(www.marananta.org, 주지 도성)가 지역 어린이를 위한 ‘제1회 마라난타 예절학교’를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경내 부용루에서 개최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된 이번 예절학교는 법성포, 홍농 등 사찰 인근지역 초등학생 40여명이 참가했다.

예절학교를 개설한 도성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꼭 익혀야 할 기초한자, 다도 등 생활예절에 주인공들이 들어간 곳은 홍성군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기원정사 포교원. 군인들은 법회를 본 뒤 기원정사 포교원 주지 동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는 포교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듯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생활예절에서 꼭 익혀야 할 기초한자, 다도 등 생활예절에 주인공들이 들어간 곳은 홍성군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기원정사 포교원. 군인들은 법회를 본 뒤 기원정사 포교원 주지 동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는 포교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듯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 美, 기독교 인구 빠르게 감소

## 워싱턴 타임즈 보도, 10년새 63%→52%

미국의 비기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국민의 과반수가 개신교를 믿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 타임즈가 7월 22일 보도했다.

21일 발표된 시카고대학 전국 여론조사 조사를 따르면 1992~2002년 사이에 자신이 기독교도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은 63%에서 52%로 감소했다. 반면에 무종교라도 대답한 응답

수는 1993년 9%에서 2002년 14%로 증가했고, 기독교 이외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의 수도 3%에서 7%로 증가했다. 기독교 인구의 감소는 비개신교 이민자의 증가, 기독교인들의 무종교인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라지는 개신교 과반수> 공동저자 스미스 씨는 “미국이 과반수 개신교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유신 기자

## 나주 다보사 산사음악회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7월 25일 나주 다보사(주지 일문)에서 열렸다.

나주문화체험학교가 주최한 음악회는 ‘천년의 향기’를 주제로 체험학교 참가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나주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소년명창 신혜인(초등 5년) 양과 명창 김영애 씨의 판소리, 대금 해금독주가 펼쳐졌으며 덕현 스님(나주 동원사)이 특별출연해 단소독주를 공연했다. 이준엽 기자

## 선각종, 재소자 합동천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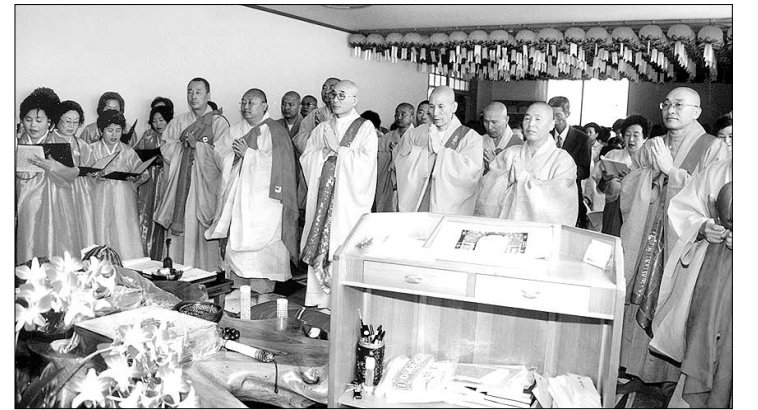
선각종 총무원(원장 정암)은 7월 23일 장흥교도소 종교실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장충교도소 재소자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제에 참석한 장흥교도소 재소자 100여명은 직접 법단에 나가 축원을 했다.

천도제에 앞서 정암 스님은 법에서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의 공덕은 축원을 올린 자신에게 돌아간다”며 “천도 공덕에 힘입어 참회정진으로 업장을 소멸하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 지금, 우리 절에서는...

## 홍성 기원정사 포교원

# 청년불심 영그는 전법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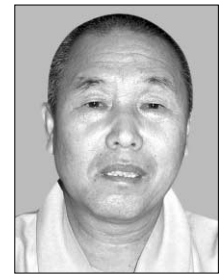


홍성 기원정사 포교원은 지난 6월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도약을 다짐했다.

7월 25일 일요일 오전. 한 무리의 군인들이 시내의 한 건물로 들어간다. 군인들이 들어간 곳은 홍성군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기원정사 포교원. 군인들은 법회를 본 뒤 기원정사 포교원 주지 동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는 포교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듯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스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군과 대학생 포교를 강조하십니다. 젊은 불자들이 키우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기원정사 포교원 김동녀 신도회장(50·홍성 석림동)은 그런 동우 스님이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우 스님은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넓은 법당을 마련하고, 더 많은 군인과 대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불교도서관도 지어 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을 열었다. 사내 한가운데에서 군인들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던 인근 주민들도 이제 동우 스님만큼이나 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 군인·대학생 법회 활성화 불서도서관 건립 발원



주지 동우 스님

지난 2000년 문을 연 기원정사 포교원. 만해 스님의 생가지(生家地)가 서해안의 중심인 홍성에 도심 포교당 하나 없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던 서산 송탁암 주지 동우 스님(태고종 총무원 교임부장·중앙종회의원이) 포교를 목적으로 개원한 도심포교당이다.

개원하자마자 동우 스님은 인근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군인법회를 개설해 오니 병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3년째 일요일마다 군인법회를 열었다. 사내 한가운데에서 군인들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던 인근 주민들도 이제 동우 스님만큼이나 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기원정사 포교원에서 군인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대학생들로 붐빈다. 해전대, 청운대 불교학생회가 이곳에서 법회를 갖기 때문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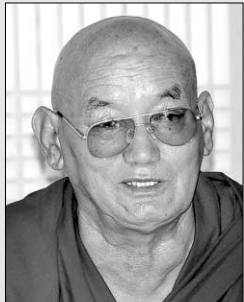
“스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군과 대학생 포교를 강조하십니다. 젊은 불자들이 키우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기원정사 포교원 김동녀 신도회장(50·홍성 석림동)은 그런 동우 스님이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우 스님은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넓은 법당을 마련하고, 더 많은 군인과 대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불교도서관도 지어 지역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을 열었다. 사내 한가운데에서 군인들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던 인근 주민들도 이제 동우 스님만큼이나 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기원정사 포교원. 만해 스님의 생가지(生家地)가 서해안의 중심인 홍성에 도심 포교당 하나 없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던 서산 송탁암 주지 동우 스님(태고종 총무원 교임부장·중앙종회의원이) 포교를 목적으로 개원한 도심포교당이다.

개원하자마자 동우 스님은 인근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군인법회를 개설해 오니 병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3년째 일요일마다 군인법회를 열었다. 사내 한가운데에서 군인들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던 인근 주민들도 이제 동우 스님만큼이나 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기원정사 포교원에서 군인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대학생들로 붐빈다. 해전대, 청운대 불교학생회가 이곳에서 법회를 갖기 때문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대학

홍성=한명우 기자



## 인터뷰 티베트 불교전문대학장 담체 스님

### 해의 포교위해 방한 ‘중생 위하는 마음’ 강의

해의포교를 위해 몽골, 일본을 방문하고 7월 27일 보성 대원사주

지 현장)를 찾은 담체 켈첸 스님(70·다람살라 립람 톱열강 불교전문대학장·사진)은 “인간의 몸은 받았을 때 수행에 매진해 모두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담체 켈첸 스님은 이날 강론을 통해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번뇌”를 꼽으며 “나(我相)라는 생각에서 번뇌가 시작되니 자기를 위하는 생각보다 모든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자라면 모름지기 먼저 공부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을 먼저 알고 믿었을 때 바른 신심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스님은 “티베트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 정부를 꾸리며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세계 속에 ‘티베트 불교’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교육의 힘이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통도사, 송광사 등 한국 사찰을 참배하고 8월 1일 인도로 돌아갔다. 보성=이준엽 기자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에게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여시아문 책방은 불교책으로 장엄된 장경각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으로 책 구하기가 편리하고 모든 정보가 전산처리 되어 편리하지요. 특히 장서의 진열도 출간연대별로 구분돼 있어 나온 지 오래된 희귀본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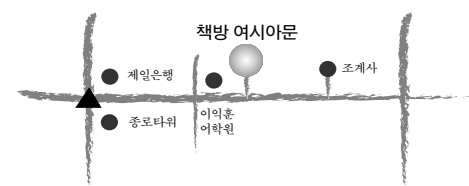
불교TV 콘스님의 대담 프로그램 ‘뜰앞의 집나무’ 진행자였던 중진 판화가 황남채씨는 여시아문을 사랑하는 단골 고객의 한 사람이다. 교계 신문에 나온 ‘불서 베스트 셀러’ 집계를 참고로 여시아문 매장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고르고 있다는 황씨는 불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미술, 여행, 건강 분야의 책들도 즐겨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남채씨 (판화가)

불교 서적 전문서점인 ‘여시아문’은 1994년 8월 24일 전문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첨단시대에 발맞추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여시아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00여 종의 불교서적 타이틀 약 80,000여 권을 구비하여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현대불교신문사의 출판부와 불교서적센터를 운영하여 도서출판 및 도서관리 그리고 도서유통까지 통합업무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책방 여시아문 약도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별공양 상담합니다>